

해남군, 가족친화 랜드마크 가족어울림센터 개관식 열려



148억 투입 (구)해남공공도서관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영유아-초등 돌봄·육아, 가족 함께 성장하는 공간 자리매김

해남군은 7일 가족친화 랜드마크가 될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는 지난 2019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2억원, 지방비 116억원 등 총 148억원을 투입해 해남읍 구교리 (구)해남공공도서관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237.39㎡ 규모로 건립되었다. 1층에는 공립해남어린이집과 방과후 초등생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섰으며, 2층 영유아기 장난감을 대여하는 장난감 도서관과 동네카페, 실내놀이터가 조성됐다. 또한 3층에는 가족관련 상담과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해남군 가족센터(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봄과 품앗이 가족모임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요리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동네부엌이 운영되며, 4층에는 교육장이 조성되었다. 개관식은 명현관 군수와 박석순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계자들과 가족단위 군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하공연과 기념식이 개최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땅끝마을에 거주하는 임하리씨 가족과 캄보디아에서 결혼 이주한 리스레이악씨 가족 등이 참가자들과 함께 마술 퍼포먼스로 가족의 행복한 미소가 꽃처럼 피어나다라는 행복 메시지를 군민들에게 전달하면서 개관을 축하했다. 명현관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보육 기반 확충을 위해 민선 7기부터 역점 추진해온 가족친화형 공간이 마련돼 매우 뜻깊다"며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가 다양한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가족어울림 공간의 랜드마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명현관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보육 기반 확충을 위해 민선 7기부터 역점 추진해온 가족친화형 공간이 마련돼 매우 뜻깊다"며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가 다양한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가족어울림 공간의 랜드마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완도군, 가족 친화 인증기관 4회 연속 선정

다자녀 공무원 승진 가점 등 가족 친화환경 근무환경 조성 노력

완도군이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심사에서 재인증을 획득하여 지난 6일 군청 앞에서 가족 친화 기관 인증 현판식을 가졌다. '가족 친화 인증'은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

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완도군은 2014년 신규 인증 이후 현재까지 총 4회 연속 선정되어 2025년까지 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군에서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

룰 수 있도록 ▲다자녀 공무원 승진 가점 ▲다자녀 및 부부 공무원 승진 시 여성 공무원 육지 근무 우대 ▲출산·육아 휴직자 업무 대행 수당 지원 ▲연가 사용 권장제(10일) 등을 추진하며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앞으로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전남도 17개 군 단위 중에서 3번째로 많은 가족 친화 기관(업) 인증(10



개소를 받았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기관단체 물가안정 릴레이 캠페인 실시

한국의식업중앙회 진도군지부 동참

진도군이 향토문화회관에서 한국의식업중앙회 진도군지부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기관단체 릴레이 캠페인을 지난 6일 실시했다. 군은 관내 개인서비스요금 업소를 분야별로 방문,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당부하는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관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연중 물가안정 릴레이 캠페인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오는 5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외식업소 종사자들의 친절과 정성, 싱싱한 식재료를 통해 진도만의 특색있는 맛있는 음식이 탄생한다"며 "바가지요금 없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진도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에 김희수 진도군수, 장영우 진도군의회의장 등이 함께 참여해 제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앞두고 바가지요금 없는 물가안정에 동참을 다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군보건소 "아동 비만 꼼짝마!"

'건강한 돌봄 놀이터'로 놀이형 신체활동 및 영양교육 제공



18주(34회)에 걸쳐 주 2회 방문해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과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각 교육은 보건소 영양사를 중심으로 강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사와 연계해 운동전문가가 참여하며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교구와 활동 교재를 활용하여 진행된다. 특히 프로그램 시작 전후 비만도 측정'과 '건강 습관 행태 평가'를 통해, 참여 아동들의 건강 습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아동 건강증진사업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이번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이 아동에게 적절한 신체활동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강진군보건소는 성장기 아동의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비만 예방 사업의 일환인 '건강한 돌봄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건강한 돌봄 놀이터는 초등돌봄교실과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형 신체활동과 영양교육을 통해 비만 예방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칠량지역아동센터 20명을 대상으로



장흥군, 모범음식점 영업주와 소통간담회 열어

장흥군은 6일 지역 모범음식점 영업주와 소통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날 소통간담회는 선진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실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모범음식점 24개소 대표들은 친절결의문을 낭독하고 음식문화개선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군 관계자는 식중독 예방법과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모범음식점 대표자들은 약선 요리 등 새로운 맛 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종사자 건강관리를 위한 주방 환풍 시설 유지비 지원, 하절기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안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2023년을 문화·예술·관광의 르네상스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영업주들과 소통을 통해 지원을 늘려갈 것"이라며, "많은 관광객이 장흥을 방문하고 머물 수 있도록 음식의 맛과 친절, 청결을 책임져 달라"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김희수 진도군수는 "외식업소 종사자들의 친절과 정성, 싱싱한 식재료를 통해 진도만의 특색있는 맛있는 음식이 탄생한다"며 "바가지요금 없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진도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에 김희수 진도군수, 장영우 진도군의회의장 등이 함께 참여해 제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앞두고 바가지요금 없는 물가안정에 동참을 다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